

정부 압력에 예산 끝길라...U대회 앞둔 광주시 ‘굴복’

외압 드러난 ‘세월오월’ 전시 무산

윤시장 “거절 못해 부끄럽다”

예술제 “최순실 하수인에...수모”

박근혜 풍자 그림 비엔날레 못 걸러

홍성담 작가 별도 대응 방안 준비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사퇴 등 파문을 일으켰던 ‘세월오월’ 사태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예술가의 표현자유까지 제한했다는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사실상 문체부의 외압에 굴복했다고 인정하는 등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창작활동에 권력이 개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드러난 외압설 실제=윤장현 광주시장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걸개그림(세월오월) 전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당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전화가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시 문화계 인콰에서 나돌던 외압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세월오월’은 5·18 시민군 등이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한 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됐다.



하지만 당시 광주시가 내린 전시불허 방침에는 외압이 작용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하게U대회 등 시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시문제를) 돌파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부끄럽다”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그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외압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제2차관은 체육분야를 총괄하며 광주시가 치러야할 국제대회인 광주하게U대회 예산지원 등을 쥐고 있는 핵심부처다.

◇지역예술계 반발=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은 이날 “윤장현 시장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힌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권 하수인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문체부는 꼭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상옥 광주미협회장은 “창작 활동에 권력이 문 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도 “외압에 굴하는 비엔날레재단 모습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오월’ 창작자인 홍성담 작가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작품 ‘세월오월’은=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달콤한 이슬-1980 그후’에 출품된 작품이다. 가로 10.5m·세로 2.5m 걸개 그림으로 시립미술관 로비에 전시하고 외벽에는 9배로 확대 인쇄한 작품이 게시될 계획이었다.

홍씨는 작품이 논란이 되자 박 대통령 대신 닭을 그린 수정작을 비엔날레 재단에 제출했지만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들은 자체 회의 끝에 ‘전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사태로 윤 교수는 책임큐레이터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 오월’ 원작(왼쪽)과 박 대통령 대신 닭을 그린 수정본. <광주일보 자료사진>

직을 사임했고 당시 이윤우 비엔날레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홍 작가도 작품 전시를 자진 철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건 유출·자금 모금·인사개입...의혹 총망라

120일간 60여명 투입 사상 최대 ‘슈퍼 특검’

여야 ‘최순실 특검법’ 뭉치 담았나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14일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현행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은 물론 그동안의 특검 규모를 크게 웃도는 ‘슈퍼 특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은 야당 추천인사가 맡게 된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교섭단체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채택하도록 했다.

규모 면에서도 현행 상설특검법을 뛰어넘는다. 이번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 검사의 숫자로 20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했다.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특검의 경우 특검보는 3명, 파견검사는 10명으로 하고 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었다.

특검 활동기간도 최장 120일간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70일간 수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대상은 우선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또 특검은 최씨가 미르·K스 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최씨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기업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한다.

■ 여야합의 ‘최순실게이트’ 특검법

	기존 상설특검법	별도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
파견 검사 수(명)	20 5	20 20
특별검사보(명)	2 2	4 4
특별수사관(명)	30 30	40 40
특검 추천 인원 수(명)	2명 중 대통령 1명 임명	2명도 야당이 추천 중 대통령 1명 임명
수사기간(일)	최장 90일	최장 120일

특검은 이 외에도 최씨가 CJ그룹의 연예·문화 사업을 장악하려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이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도 파헤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다. /박지경기자 jkpark@

JP “박 대통령 5000만 달러 들어도 해야 안할 것”

“고집 꺾을 사람 아무도 없어...박정희·육영수 나쁜 점만 물려받아”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14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발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며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이기도 한 김 전 총리는 “하야는 죽어도 안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 악하니 의심을 잘했다”고 회고했고, 육영수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꾸며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박 대통령이 “육 여사의 이중적인” 면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내려

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그만둬야 풀린다. 조금이라도 풀린다 그나마”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지원할 의사를 내비쳤다. 대선주자로서 반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김 전 총리는 “반기문이 와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라 말하면서 “세계정부에서 10년간 심부름한 사람 아닌가. 보통 사람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반기문은 구령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사람이고, 안철수는 아직 구령이가 꼬지를 들고 앉은 것 같지는 않다. 비교적 순수하다”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나가면 그만둘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름 그대로 문제다”라고 말했다. /연휴뉴스

지역민과 함께하는

GIST

연구성과물 전시회

11.21 ▶ 11.28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2

QS 세계 대학 평가

2년 연속

세계 2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GIST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6. 12. 31(토) ~ 2017. 1. 3(화)

▶ 주요행사

일시	시간	주요내용
21(월)	11:00	개막식 및 GRI New Vision 선포
22(화)	14:30	참행복나눔포럼 연계 특별강연(KAIST 강성모 총장)
23(수)	14:00	Talk Concert(GIST김희삼 교수, GIST홍보대사)
24(목)	14:00	4차 산업혁명 이야기(GIST 이흥노 연구원장)
25(금)	10:00	GIST CEO 포럼 / 무한도전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26(토)	14:00~22:00	GIST 어울마당(드론·VR·로봇 체험, 영화·연극, 천체관측 등)

※11.27(일)은 휴무

▶ 운영시간 10:00~18:00(성과물 전시 및 체험)

▶ 전시물 드론, 로봇,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3D프린터, 태양전지, 로켓 발사체 등 40여점

▶ 문의 gri@gist.ac.kr/ 062)715-5202~5

주최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주관 GIST연구원 GTI 과학기술융용연구단 GIST TECHNOLOGY INSTITUTE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국립광주과학관 U·C·E·R·T·M